

# 어반스케치로 담은 폐교...동네 삶과 역사 상기

### ‘남평 507’ 개관전 이후 첫 기획전시 13명 참여 내달 31일까지 대광여고 출신 작가들 작품 선배 개관 전 과정 영상 변화 한눈에...문화거점 시동

1911년 남평학교조합 설립 남평심상고 등소학교로 개교한 것이 출발이 된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283번지(광촌리) 소재 남평북초등학교. 100년에서 4년 못 채운 96년만에 아쉽게 폐교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학령인구 감소가 컸다. 그래서 2007년 폐교 수순을 밟고 방치된 채 버려지다시피했다.

그러던 것을 ‘모내기(오계) 화가’로 널리 알려진 정명숙 작가가 복합문화공간 남평 507로 탈바꿈시켰다.

정 작가는 나주시에서 2년 전 공모한 것을 눈여겨봤다가 지원사업을 신청, 공모자로 선정되면서 구체화됐다. 그러면서 10여년 넘게 방치됐던 남평북초등학교에 다시 숨을 불어넣게 됐다. <본보 3월 9일자 16면 참조>

정 작가는 이 폐교 공간에 카페와 갤러리, 감성마루(불명카페), 플라 홀(세미나실), 플라 스튜디오(체험학습실), 예술코어, 역사관, 마을주민센터 등 다채로운 공간을 구축해 지난 3월 19일 개관전을 시작으로 본격 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문을 열자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서부터 작품 감상, 불명 참여, 각종 체험 프로 등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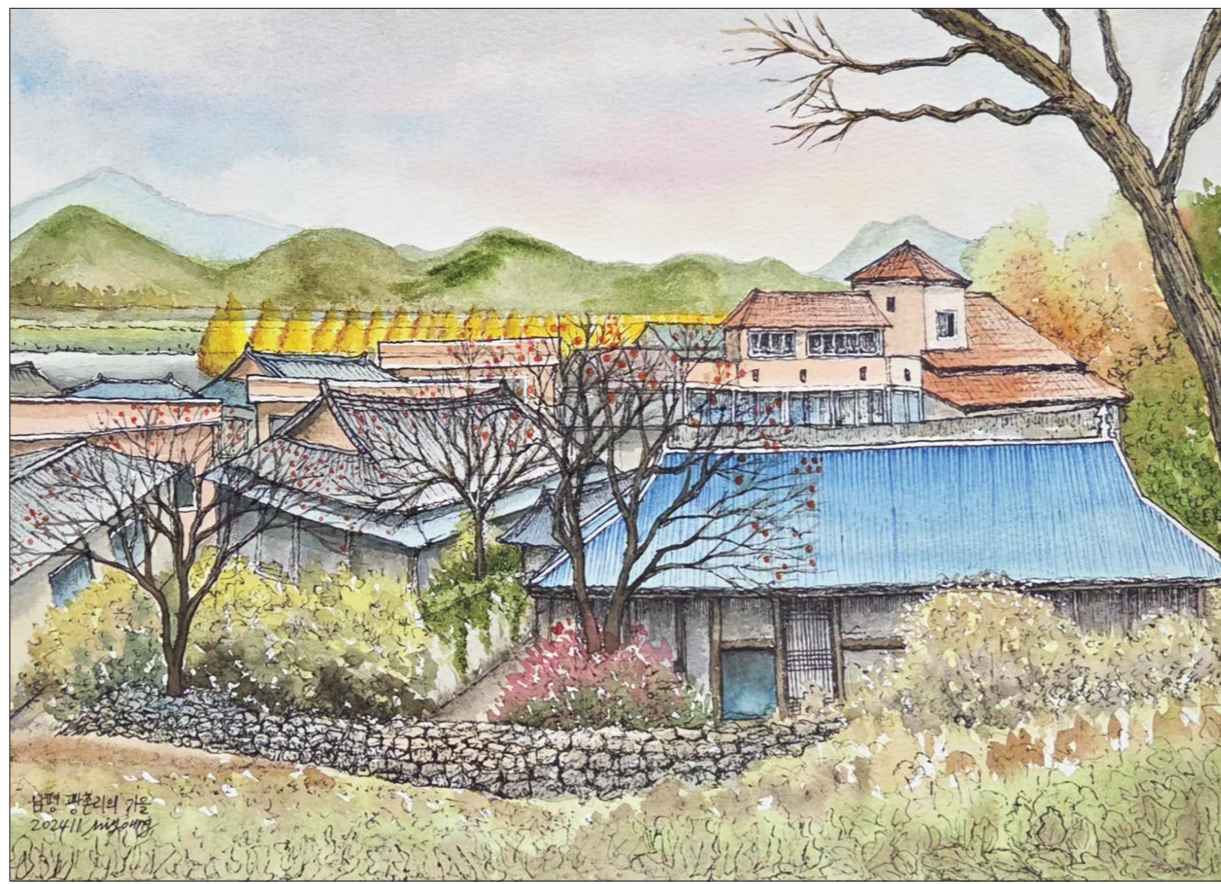
나주 역사 소개, 그림그리기 체험 등 자

체적으로 마련한 강좌 10가지 정도를 구성해 운영할 복안인 가운데 오는 5월 15일께 광주여성경제인협회 회원 80명의 체험 학습도 예정돼 있다. 어린이에서부터 기성세대, 경제인 등에 이르기까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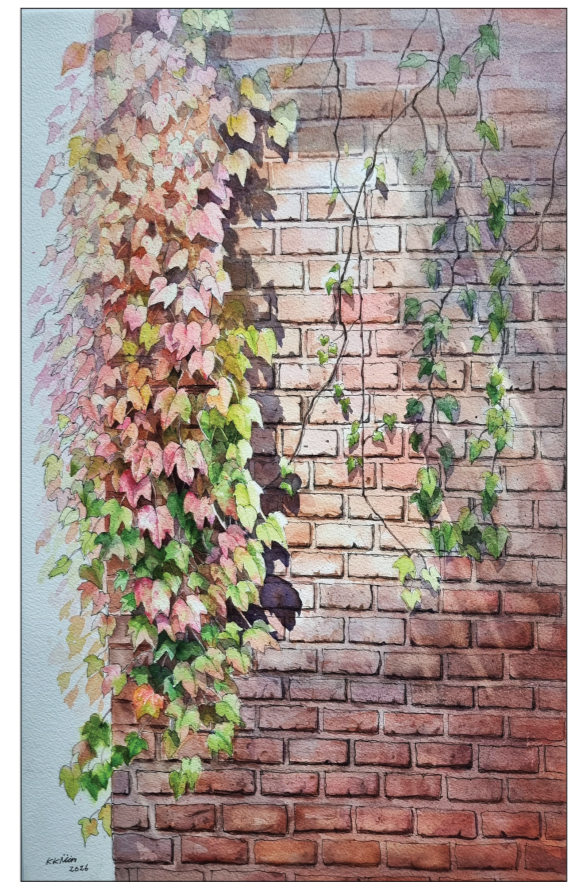
정 작가는 광주문화재단(현 광주에당) 대극장 로비 내 문화예술 카페를 12년 동안 운영했으며, 영주체육관 등 시내에서 최대 4개까지 커피숍을 운영했다. 구례에서 캠퍼스를 열었고, 남평 507로 넘어오기 전에는 화순 농주 작업실에서 활동을 펼쳤으며, 인근 학교에서 아이들 미술을 지도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선정에도 응모, 양으로 도움이 됐다는 귀띔이다. 정 작가는 예술가이지만 사업적 수완까지 갖췄다는 주변의 반응이다.

이곳 문화공간 역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중간 중간 있었지만 거의 혼자 공간을 구축했을 정도로 그의 애정이 담백 담긴 공간이다. 공간 곳곳을 둘러보면 그것을 짐작하듯 거간 그리 어렵지 않다. 주차장 옆 김숙빈 작가의 조각 ‘삼죽오의 비상’ 설치도, 담벼락의 그림도, 남평 507 명패도, 주차장 공간도, 그곳의 담벼락도, 책상의 푸른 색깔도 손길이 가지 않은 것이 없다.

개관전은 ‘남평으로의’ 타이틀로 지난 3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당시 전시에는 김해성, 조근호 류재



조미영 작 '남평 광촌리의 가을'



김경민 작 '남평북교 담벼락 위로 스며든 햇살'

웅 한희원 박구환 작가 등이 참여했다. ‘남평으로의’ 다음은 여백이다. 자신이 성실히 꾸민 문화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채워달라는, 혹은 채워가라는 의미인듯 싶다. 전시 첫 시험을 끝낸 정 작가는 개관 두 번째 전시를 마련했다. 전시는 지난 19일 개막, 오는 5월 31일까지 ‘다시 피어난 학교, 507일간의 스케치’라는 주제로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는 주로 어반스케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문화공간 탄생 과정을 예술적 기록으로 담아낸 첫번째 기획전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들 작가는 2년 반여 동안 현장을 5회

방문해 그림기록에 나섰다. 2024년 늦여름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 거칠었던 폐교의 모습부터 매서운 추위 속에서 진행된 공사 현장, 그리고 마침내 따뜻한 봄날 아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까지 507일을 어반스케치 작가와 정 작가의 영상으로 기록했다. 여기서 숫자 507은 이곳의 변치이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필요했던 날 수의 의미다. 정 작가는 나주시와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학교가 재탄생하는 전과정을 카메라에 기록, 5분여 분량으로 편집했다는 후문이다.

참여작가는 김경민 김수옥 김은영 문승

일 서재은 선안희 양승희 장윤숙 정성모 조미영 조순옥 조혜경 황경희 등 13명이다. 전시에는 정 작가가 졸업한 대광여고 출신 화가들과 졸업생 1명이 함께했다. 전시 총괄은 정명숙 작가, 기획은 윤민화 대표(광주예술공간연구소)가 각각 맡았다.

장윤숙 작가는 작품 단상을 통해 “마주한 남평광촌분교는 눈부신 햇살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 시간의 곁을 품은 고목들은 말 없이 서서 지나간 계절들을 지키고 있었고, 나는 고요하게 이끌어 잠시 스쳐가는 빛과 공기를 흐트러지지 않는 선 하나로 붙잡고자 했다. 이 작은 풍경이 어

딘가에 저마다의 기억으로 다시 피어나기를 조용히 바라본다”고, 조미영 작가는 “남평 광촌리는 중학교 때 한 교실에서 공부했던 옛 남평북초등학교 출신 친구들의 고향마을이다. 순박했던 그때의 친구들은 지금쯤 고향의 가을 풍경만큼이나 곱게 물들어 가고 있겠지”라고 각각 언급했다.

개관한 지 한달 남짓 지난 남평507이 두 번째 전시를 마련하는 등 농촌마을에 잔잔한 문화적 파동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되는 가운데 문화거점으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대만에 문창환·독일에 임용현 작가 선발

###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국외교류기관 파견작가 선정 타이난 샤오룽 컬처파크·윈헨시 문화부 빌라 발트베르타 등

국제레지던시 국제교류기관 파견 작가가 확정됐다.

28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에 따르면 지역 미술인의 해외 교류와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 국제레지던시 국제교류기관 파견 작가 공모’ 결과, 해외교류기관에 파견할 작가 2명 선발을 마무리지었다.

파견될 작가는 대만 타이난 샤오룽 컬처파크(Soulangh Cultural Park)와 독일 윈헨시 문화부 빌라 발트베르타(Villa Waldbertha)에서 각각 활동하게 되는데, 대만 파견작가에는 문창환(뉴미디어), 독일 파견작가에는 임용현(뉴미디어)이 각각 선발된 것이다.

공모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

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류심사와 외국어 인터뷰 등 면접(양 국가 동일), 독일의 경우 현지 교류기관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이 확정됐다.

선정된 작가들은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대만, 독일 레지던시에 참여한다. 대만 파견은 5~6월(2개월), 독일 파견은 7~9월(3개월) 동안 진행되며, 선발된 작가 2인은 현지에 체류하며 창작 및 교류 활동을 펼친다.

작가들에게는 왕복 항공료 실비와 창작 지원비가 지원되고, 현지에서 제공되는 개별 스튜디오에 머물며 예술가들과 교류한다. 또한, 교류기관이 주관하는 작품발표회와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해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할 방침이다.



문창환 작가



임용현 작가

먼저 대만 샤오룽에 파견되는 문창환 작가는 주거, 환경, 에너지 등 사회 시스템이 구축한 보이지 않는 구조를 리서치하고, 그 이면에 감춰진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뉴미디어 기반의 설치 및 영상 작업으로 가시화하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

대만의 일제 식민지 시기 설탕공장으로 사용됐던 교류기관의 장소적 특수성에 주목해 설탕 산업이 촉발한 노동 이동과 장

소의 변형을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작품을 보여줄 방침이다.

독일 윈헨에 파견되는 임용현 작가는 시스템과 기술 문명이 초래한 사회적 이면을 탐구하며, 3D 프로젝션 맵핑과 인터랙티브 영상 등을 활용한 작업들을 진행해 왔다.

정보 과잉과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 ‘초미디어’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왜곡, 감시, 증독과 같은 동시대 문제를 풍자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독일 체류 기간에는 윈헨의 건축적·사회적 맥락을 조사해 미디어 기술이 도시의 기억과 결합하는 방식을 탐색, 이를 시각적 서사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와 함께 선발된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입주작가 송유미, 윤연우는 지난 1일부터 중외공민 내 스튜디오에 입주해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독일 윈헨시 문화부에서 파견하는 작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에 입주해 창작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가족의 의미 되새기는 연극 ‘사랑해 엄마’

### 내달 2~3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가정의 달 선배...조혜련·김지선 출연

가족의 소중함을 담은 휴먼 연극 ‘사랑해 엄마’가 광주를 찾는다.

‘사랑해 엄마’는 남편 없이 노점상을 하면서 홀로 자식을 키웠던 한 어머니와 철없는 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족 간의 갈등과 사랑을 그린 다. 특히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가족의 의미를 되짚는다.

작품은 2015년 초연 이후 꾸준한 무대에 오르며 관객의 공감을 얻어온 스테디셀러 연극이다. 2019년 흥행작으로 주목받았으며, ‘2025 춘천연극제’ 대상 수상작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호주 시드니 초청 공연을 통해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무대에는 배우 조혜련과 김지선이 엄마 역으로 출연하며, 김효진과 정가은이 또 다른 엄마 역으로 참여해 다양한 해석을 선보인다. 이들 철동 역에는 정지환, 안대겸, 유희재, 아버지 역에는 조지환, 주희중, 이정연 배우가 각각 출연한다. 이외에도 선영, 허



풍, 이모·할매, 딸티남 등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극의 흐름을 이끈다.

연출은 방송인 출신 배우 조혜련이 맡아 특유의 감정선과 호흡으로 극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극단 코스모스가 주최·주관하고 ㈜조이컬처스·안녕컴퍼니 제작하는 연극 ‘사랑해 엄마’는 오는 5월 2일 오후 2시·6시, 3일 오후 2시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 양한 해석을 선보인다. 입장료는 R석 6만6000원, S석 5만6000원.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광주여성길 걷고 오월어머니집과 주먹밥 만들자”

### 여성가족재단 도보투어 이벤트 내달 16~17일

### 두릅길 등 3개 코스·체험...5월 14일까지 접수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여성길 5·18 주먹밥 도보투어’ 이벤트를 선보인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틀간 총 10회 진행되며 광주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따라 걷는 ‘광주여성길’ 도보투어 후 오월어머니집에서 주먹밥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여성길’은 2022년부터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광주여성사 탐방 프로그램으로 ‘두릅길’, ‘백단심길’, ‘홍단심길’ 등 3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각 코스는 양림동과 충장로 일대의 여성 인물과 역사적 공간을 중심으로 광주 여성 100년의 삶과 이야기를 조망한다.

이번 ‘광주여성길 5·18 주먹밥 도보투어’는 그 중 ‘두릅길’과 ‘백단심길’을 대

으로 하며 두릅길은 양림동을 중심으로 근대 여성교육과 여성 선교사의 삶, 백단심길은 3·1운동과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삶을 따라 걷는 코스다.

참여 신청은 오는 5월 14일까지 선착순 진행되며, 5인 이상 신청 시 참여 가능하다. 개인도 신청 가능하나 동일 회차 누적 참여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에 운영된다.

각 코스는 1시간 30분여 소요되며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여성사와 지역 역사 이야기를 해설한 후 오월어머니집에서 주먹밥 만들기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단, 기상 상황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장소와 시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